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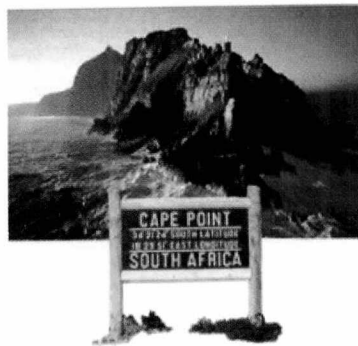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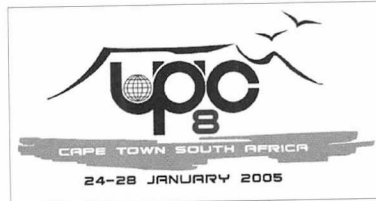
인쇄종주국 위상

인협, 세계인쇄회의 가입

1국가 1개 단체만 가입 가능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민재기)가 지난 8월12일, 세계인쇄회의(World Print & Communication Forum)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인협은 세계인쇄회의의 회원 가입과 관련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량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 세계인쇄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인쇄회의의 본부 사무국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쇄협회장인 크리스 사이케스(Chris Sykes)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 회원은 세계 어느 국가든 1개국에 1개 단체만 가입할 수 있다. 본부는 회장과 상임이사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장은 매 4년



마다 개최되는 회의에서 선임된다. 회원국가 단체장이면 상임이사 신청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장이 상임이사로 활동하겠다고 신청하면 세계인쇄회의의 회장이 선별하여 회의에 상정, 결정된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회원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일본, 홍콩, 인도, 호주, 싱가포르, 유럽 26개국을 비롯해 총 50여 국가에 이른다. 회원은 회비납부 및 회의참가 의무가 있으며 회칙에 명시된 권리를 갖고 회의 참가 시 등록비 중 일부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쇄 및 공급업체 이슈 토론의 장 제공

세계인쇄회의의 주요 목표는 인쇄업체와 관련 공급업체들이 국제

세계에 심는다

적인 시각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정식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에 있다. 또한 세계인쇄회의는 매 4년마다 '세계인쇄 및 커뮤니케이션 대회'를 조직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기존의 세계인쇄대회(World Print Congress)와 콤프린트국제컨퍼런스(Comprint International Conference)가 하나의 행사로 합쳐, 대체된 것으로 2005년 1월24일부터 28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쇄대회의 역사를 이어 받아 8회째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 대회의 정식명칭은 '세계 인쇄 및 커뮤니케이션 대회 및 전시(World Print and Communication Congress and Exhibition)'로서 'WPC8'으로 불린다(전시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www.wpc8.com 참조).

이번 대회는 세계인쇄회의의 사무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쇄협회 공동주최로 '세계 인쇄시장 이익실현의 오늘과 내일(The World of

Print Profiting Today and Tomorrow)'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며 코팅 파인 페이퍼의 세계 선두 업체인 사파가 후원을 담당기로 했다.

WPC8...800명 예상, 인협도 대표단 파견 계획

WPC8 대회와 관련 크리스 사이케스 세계인쇄회의 회장은 "WPC8은 21세기 전세계적으로 인쇄산업과 포장산업 및 관련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쟁점사안들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연설자들과 대표단들이 세계 각국에서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진정한 국제 규모의 이벤트가 될 것이다. 또한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통찰력을 통해 현재 산업의 경향과 영향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한편, 우리 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세계에서 WPC8에 보여준 관심은 매우 크며 이번 대회를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



www.wpc8.com

력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에게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광범위한 스폰서와 전시의 기회가 남아 있으며 관련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내국인 300명, 외국인 500명 등 총 800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대회에 인협도 대표단을 구성,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인협은 호주 애들레이드(1997년, 14명)와 중국 북경(2001년, 33명)에서 개최된 세계인쇄대회(World Print Congress)에 비회원국으로 참석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대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할 계획이다.

(조갑준 차장)